

언어자료 추출법에 대한 一考

-문법성 판단 및 OPI에 대한 검토-

金玄珠*

目次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형태의 측면에서
 3. 언어자료로서의 타당성 제고 측면에서
 - 3.1 문법성 판단
 - 3.1.1 시간제한
 - 3.1.2 중간언어의 불확정성
 - 3.2 언어자료로서의 OPI
 - 3.2.1 항목별 타당성
 - 3.2.2 다양한 코퍼스 구축
 4. 요약 및 결론
-

1.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언어습득연구 혹은 외국어교육학 연구에 있어 언어자료 추출법으로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 일본어교육의 연구에서는 조사에 따르는 시간적·경제적 노력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법성 판단(Grammaticality Judgements)’과 OPI(Oral Proficiency Interview)¹⁾를 언어자료로 활용하는 방법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러한 언어자료 추출법을 이용한 접근방법의 타당성과 적절성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와 근본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고

* 경북대학교 일어일문학과, 강사

1) 원래 OPI는 범언어적 구두능력평가법이나 본고에서는 그 자체를 제2언어학습자의 자연발화를 관찰하기 위한 언어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에서는 이 두 가지 언어 추출법의 특징에 대해 논한 후 일본어 교육연구에서 각각 어떠한 형태로 사용되고 있으며, 양질의 언어자료를 추출하기 위해 어떠한 테스트 디자인이 필요한지 방법론적 측면에서 검토하여 일본어를 비롯한 외국어 교육연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사를 얻고자 한다.

2. 연구형태의 측면에서

문법성 판단과 OPI의 언어자료로서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크게 논의된 바가 없다. 본고에서는 이들 언어 추출법이 어떠한 연구 형태에 적합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언어자료 추출법에 어떠한 방법이 있으며, 그 가운데 문법성 판단과 OPI에 적절한 연구형태는 어떠한 것인지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ハーバート·W·セリガー외 (2001)는 언어자료 추출 방법을 데이터에 어느 정도 초점을 맞추는가에 따라 ‘저 명시성’에서 ‘고 명시성’에 이르는 연속체로 나타내어 설명하고 있다.

표1. 언어자료 수집방법과 그에 적합한 연구 형태

저 명시성	고 명시성
←	→
탐색적	연역적
일기	목표언어 테스트
기록조사	구조화된 면접
저널	
편지	대단히 구조화된 설문
자유 형식의 면접	문법성 판단
회화	구조화된 설문
제약이 없는 관찰	구조화된 관찰
	개별항목테스트

ハーバート·W·セリガー외 (2001: p175)

명시성(explicitness)이 낮은 <일기> <기록조사> <저널> <편지> 나 자유형식의 <면접> <회화> <구조화되지 않은 면접> <제약이 없는 관찰(Open observation)> 을 탐색적·종합적 추출법으로 분류하고 명시성이 높은 <목표언어 테스트> 와 <문법성 판단> 및 <구조화된²⁾ 설문> 이나 <구조화된 관찰> <개별항목 테스트> 를 분석적·연역적 추출법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구조화된 면접> 과 <대

2) 사전에 치밀하게 구상한 질문 혹은 순서에 의한 것

단히 구조화된 설문〉을 ‘저명시성’과 ‘고명시성’의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중간 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이 가운데 특히 〈면접〉과 〈설문〉 및 〈관찰〉에 있어서는 ‘명시성’과 ‘구조화’의 정도라는 두 가지 기준에서 분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본고에서는 특히 문법성 판단과 OPI를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문법성 판단에서는 언어자료 수집에 있어 조사자가 특정 항목에 초점을 두고 자료를 추출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언어자료로서의 OPI에서는 조사자 혹은 테스터가 특정 항목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자료를 추출하는 ‘회화’와 유사한 형태를 취한다. 또한 OPI에서는 테스터가 요구하는 정보와 피험자의 응답에 따라 여러 가지 이야기가 추가·확장될 수 있는데 이러한 점에서 OPI는 비교적 명시성이 낮은 탐색적·종합적 추출법으로 분류된다. 이것은 구체적인 이론이나 가설이 없는 상태에서 외국어 학습의 어떤 현상이나 상황을 관찰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여 구체적인 연구 과제를 도출하고 가설을 구축해 나가는 탐색적·가설 구축형 연구에서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일본어를 외국어 혹은 제 2언어로 습득하는 과정을 구체화하기 위해 OPI를 언어자료로 하여 형태소나 문법 항목의 습득계층을 조사하고 습득계층모형을 구축하는 것도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다. 이와 달리 문법성 판단은 비교적 명시성이 높은 분석적·연역적(deductive) 추출법으로 탐색적 연구 성과에 근거한 가설이나 예측, 이론에서 출발하여 외국어 학습의 다양한 현상을 체계적으로 검증하는 연역적·가설 검증형 연구에서 유리하다. 따라서 문법성 판단과 OPI는 서로 목적을 달리하는 언어 추출법이라고 하겠다.

3. 언어자료로서의 타당성 제고 측면에서

여기에서는 문법성 판단과 OPI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각각의 언어자료 추출법의 구체적 특징을 정리하고, 문제점을 고찰하여 언어자료로서의 타당성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다.

3.1. 문법성 판단

문법성 판단이란 어떤 언어를 모어로 하는 화자에게 특정 구문이 그 언어에서 용인(容認) 가능한지 어떤지를 언어적 직감으로 판단하게 하는 테스트 방법으로 학습자의 목표언어 능력을 조사하는데 널리 사용되는 언어자료 추출법이다. 특히 일본어 교육에서는 1990년대에 Cowan and Hatasa(1994)를 비롯하여 여러 연구에서 제시되었으며, 坂本·小山(1997)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소개된 이후 일본어 학습자의 중간언어(interlanguage)의 메커니즘을 조사하기 위한 수단으로 확산되었다.

문법성 판단은 횡단적 연구(Cross-sectional study) 방법으로 데이터 수집에 수

반되는 시간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으며, 데이터에 초점을 맞추는 데 있어 명시성이 높아 통제 여하에 따라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양질의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다. 그러나 중간언어가 다양한 변수를 내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항목의 적합성 및 피험자의 판단에 다른 요소³⁾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철저히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 본고에서는 문법성 판단에 있어 검토해야 할 점으로 특히 시간제한(time constraint)과 중간언어의 불확정성(indeterminacy)에 대해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3.1.1 시간제한

먼저 연구 자료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간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Han and Ellis(1998)에서는 시간이 테스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논의하고 있는데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테스트는 중간언어 지식체계 가운데 주로 제2언어 학습자의 명시적 지식(explicit knowledge)⁴⁾을 조사하는 데 유리하나 시간에 제한을 두는 테스트는 주로 제2언어 학습자의 비명시적 지식(implicit knowledge)⁵⁾을 조사하는 데 유리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Han(2000)에서는 시간에 있어 양적 통제를 하지 않은 문법성 판단은 학습자의 비명시적 지식을 정확하게 조사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환언하면 연구자가 문법성 판단을 이용하여 학습자의 언어적 직감을 조사하고자 할 때 문제에 대해 답을 할 시간이나 진행 속도 등을 테스트 디자인 과정에서 반드시 설정·조정해야 한다(金玄珠 2004 참고).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제2언어 학습자의 언어적 직감을 조사하는 문법성 판단에 있어 시간을 통제를 한 것으로 Johnson and Newport(1989)와 金玄珠(2003, 2004)를 들 수 있다. Johnson과 Newport는 영어를 제2언어로 습득하는 46명의 한국인 미국 이민자와 중국인 미국 이민자를 대상으로 제2언어 습득과 연령의 관계를 문법성 판단 테스트를 이용하여 조사하고 있는데 이 때 한 문항에서 다음 문항으로 이행하는 시간적 간격을 3초 내지 4초로 설정하고 있다.

일본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문법성 판단을 사용한 것으로 앞서 제시한 연구 외에도 다수 찾아볼 수 있으나(黒野敦子1995, 坂本正1996, 坂本正·小山悟1997, 奥野由紀子2005) 시간제한(time constraint)을 통해 시간의 양적 통제를 한 것은 필자가 아는 한 金玄珠(2004) 뿐이다. 시간제한에 관해서는 모든 문장에 있어 모어화자가 자연스러운 스피드로 말할 때 소요되는 시간(2초 내지 3초⁶⁾) 외에

3) 예컨대 예비테스트의 연습 효과, 피로(疲勞) 등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4) 화자의 제어 능력에 의해 접근 가능한 지식 체계로 신중한 계획에 따라 수행되는 테스트 혹은 모니터링이 가능한 테스트에서 사용되는 분석적이며, 모델에 근거한 지식체계를 말한다.

5) 명시적 지식과 달리 유창한 언어 퍼포먼스를 요구하는 테스트에 있어 비교적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무의식적이며, 비분석적 지식체계로 설명할 수 있다(이상 Han and Ellis 1998, 金玄珠 2006).

6) 문장의 길이를 정량화하여 균일하게 맞추기 어려우므로 모어화자가 자연스러운 속도로 읽을 때 소요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통제하는 방법을 채택했다.

결과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찾아볼 수 없었으나 학습자의 경우 재테스트에서 정판단률이 12.9%($t(9)=4.42, p<.001$) 상승함으로써 연습의 효과가 명확하게 나타났다. 또한 문제문을 과다하게 용인함으로써 반응이 한 쪽으로 편중되는 과잉용인형 편중경향⁹⁾(sign test, $p<.05$)이 나타났으며, 학습자의 반응에 있어 추측이 생겨날 확률도 25%로 나타나 문법성 판단을 실시할 때 테스트 디자인에 있어 이러한 변수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규명하였다. 중간언어가 다양한 문맥적 변수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테스트에서 이와 같은 요소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우나 통계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도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테스트 디자인에 있어 학습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小柳かおる(1998)에서는 연습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철저하게 통제된 실험계획법을 사용했다. 일본어 학습자의 조건문 습득에 있어 문법 설명의 효과를 검토하기 위해 3회(I 문법 설명 10일 전, II 문법 설명 직후, III 문법 설명 2개월 후)에 걸쳐 테스트를 실시했는데 반복되는 테스트 과정을 통해 연습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분할구획법(Split-block design)을 도입했다. 즉 테스트 디자인에 있어 테스트의 횟수는 3회이나 버전이 각기 다른 3종류의 테스트를 준비함으로써 학습자 개인이 실험에 참가하는 동안 동일한 테스트에 접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했다. 이 때 테스트의 내부 편성은 무작위로 바꾸게 되나 내용이 동일한 것이므로 테스트의 목적과 배경에 있어 일관성이 유지된다.

奥野由紀子(2005)에서는 학습자의 주의를 연구자가 목표로 하는 항목 이외의 부분에 분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언어 형식에 초점을 맞추는 방법을 채택했는데 金玄珠·奥野由紀子(2007)에서도 이와 동일한 방법이 사용되었다. 이 방법에서는 보기1과 같이 언어 형식이 삭제된 공란 부분에서 문자 없이 음성만을 제시한다.

보기 1.

【음성】 「この植物根は食べられます」

↓

【문제】 「この _____ は食べられます」 (×)

金玄珠·奥野由紀子(2007b: p45)

9) 학습자에게 문법성 판단을 ○와 ×로 수행하도록 한 결과 반응이 ○에 치우치는 경향(signal detection 분석에 의함)이 나타났는데 이러한 경향은 Johnson의 (1996)에서 나타난 'Yes bias'와 동일한 것이나 Bley-Vroman의(1988)에서 나타난 'No bias'와는 상반된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黒野敦子(1995)에서는 영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일본어의 문법성 판단을 실시했는데 단어를 모르는 것이 문법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문제문의 모든 단어에 아래와 같이 영문 표기를 첨가했다.

보기 2.

「スミスさん、レポートは書けましたか。」

Sumisusan, repooto-wa kakemashita-k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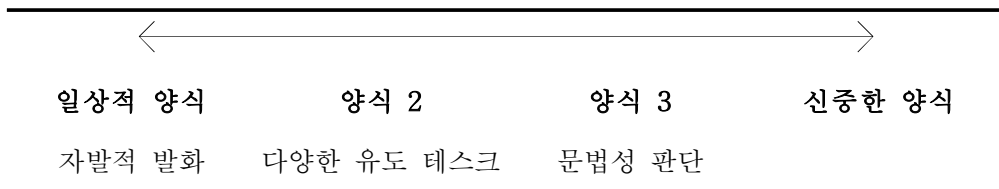
黒野敦子(1995: p155)

문법성 판단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사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테스트 디자인에 있어서도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3-2. 언어자료로서의 OPI

Tarone (1983)은 언어 추출법에 있어 테스크(Task)의 유형에 따라 중간언어의 양식¹⁰⁾을 다음에 제시한 그림 1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그림1. 중간 언어의 연속표



Tarone(1983: p152)

즉 자발적 발화 유형과 같은 ‘일상적 양식’과 학습자의 모니터링이 강화되는 ‘신중한 양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중간언어 양식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가운데 언어자료로서의 OPI는 학습자의 모니터링을 최소한 억제할 수 있는 일상적 양식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중간언어 양식에서는 학습자의 주의가 문법적인 모니터링보다 의미 처리에 우선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 회화와 마찬가지로 안정된 언어자료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비교적 명시성이 낮은 언어자료 추출법이므로 피험자가 연구자의 의도를 추측하거나 의식할 가능성이 낮은 점을 장점으로 들 수 있다. OPI는 분명 일상적 양식에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으나 Tarone이 제시한 일상적 양식과 달리 언어자료로서 철저히 통제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10) Tarone에 따르면 정보원(情報源)에 있어 일관성이 없을 경우에는 서로 다른 중간언어 양식이 언어자료에 혼재하게 되며, 이로 인해 중간언어 양식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워진다고 한다.

山内博之(2001)에서는 언어자료로서의 OPI(이하 OPI로 약기)의 특징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제시하고 있다.

- a. 표준화된 양식을 갖추고 있다.
- b. 학습자가 수행할 수 있는 최고의 퍼포먼스를 추출할 수 있다.
- c. 학습자의 회화 능력 수준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OPI는 학습자의 자발적인 발화 형태의 언어자료임과 동시에 일상적 양식의 대화나 자유 형식의 면접과 달리 준비 단계(warm up)에서 출발하여 수준 탐색(level check)과 한계 탐색(probe)을 반복적으로 행한 후 종결 단계(wind down)를 통해 완결하는 표준화된 형식을 갖추고 있는 점에서 철저히 통제된 언어자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연구 자료의 타당성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언어 자료의 질적인 면에서도 한계수준 탐색을 통해 개별 학습자에 있어 최고¹¹⁾의 퍼포먼스를 추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언어자료로서의 OPI에서는 한 번의 자료 수집과정을 통해 학습자의 목표 언어 능력 측정과 데이터 확보를 동시에 꾀할 수 있으며, 이미 구축된 코퍼스를 사용할 경우 학습 레벨별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언어자료 수집과 학습레벨 측정에 수반되는 시간과 노력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OPI는 상술한 바와 같이 다양한 장점을 갖추고 있으나 언어자료로서 검토가 따라야 할 문제점도 있다.

3.2.1 항목별 타당성

정용의 출현 시기가 비교적 빠른 항목 혹은 자발적 발화에서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려운 항목의 습득과정을 검토하기 어려운 점을 지적할 수 있다.

2장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OPI가 구체적인 이론이나 가설이 없는 상태에서 탐색적·가설 구축형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 유용한 점은 분명하나¹²⁾ 조사와 같이 자발적 발화에서 생략이 빈번히 일어나거나 정용의 출현이 비교적 학습의 초기단계에 이루어지는 항목에서는 습득연구의 언어자료로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필자는 金玄珠(2007)에서는 일본어 OPI코퍼스와 한국어 OPI코퍼스를 이용하여 제2언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일본어와 한국어의 조사 습득과정을 한↔일쌍방향적(bidirectional)¹³⁾으로 검토하였는데 정용의 출현 경향은 알 수 있었으나 OPI를 이

11) 목표언어 능력에 있어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한계수준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12) OPI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에서 보고된 바 있으며, 그 대표적인 예로 스노ーラット・ニャンジャローン스ック(2001)에서는 KY코퍼스의 영어, 중국어, 한국어를 대상으로 조건표현(「とば・たら・なら」)에 관한 습득연구에서는 조건표현의 습득계층 모델구축을 통해 제2언어로서의 일본어 습득 연구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13)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의 일본어 조사 습득과정과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조사 습득과정 에 초점을 맞추는 접근 방법을 의미한다.

용하여 조사의 습득계층 모델을 구축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다음 표3과 표4는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와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조사의 습득순서를 검토하기 위해 일본어 OPI와 한국어 OPI에서 추출한 데이터를 Implicational Scaling를 이용하여 분석한 것이다.

표3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의 일본어 조사 습득에 나타난 양상

	←										
	後	まで	から	と	に	の	を	で	が*	は	先
상급·상	1	1	1	1	1	1	1	1	1	1	1
상급·중/하	1	1	1	1	1	1	1	1	1	1	1
중급·상	1	1	1	1	1	1	1	1	1	1	1
중급·중/하	1	1	1	1	1	1	1	1	1	1	1
초급·상	0	1	0	1	1	1	1	1	1	1	1
초급·중/ 하	0	0	1	1	1	1	1	1	1	1	1

$C_{sal} = .075 (> .060)$

표4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조사 습득에 나타난 양상

	←														
	後	에	부	을	까	를	이	은	의	하	에	가	에	는	先
상급·상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상급 중/하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중급·상	0	0	1	1	1	1	1	1	1	1	1	1	1	1	1
중급 중/하	0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초급·상	0	0	0	0	1	1	1	1	1	1	1	1	1	1	1
초급·중	0	0	0	0	0	0	0	1	1	1	1	1	1	1	1

$C_{sal} = .092 (> .060)$

(이상 金玄珠 2007: p111)

이것은 정용의 출현 순서를 학습레벨별로 검토하여¹⁴⁾ 항목간 함의관계(굵은 선)를 나타내고자 한 것인데 데이터 처리의 신뢰성을 나타내는 확장성지수(C_{sal} : Coefficient of Scalability)는 양쪽 모두 타당하였으나(표3: $C_{sal} = .075 (> .060)$, 표4: $C_{sal} = .092 (> .060)$) 습득 순서가 상세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표3에서 더욱 현저하다. 단일 항목을 의미·용법에 따라 하위 카테고리 분류하여 항목의 내적 함의관계를 도출한 연구¹⁵⁾도 있으나 다양한 조

14) ‘사용할 줄 아는 것’을 습득의 전제로 하여 단 한 번이라도 정용이 출현하면 1, 정용이 전혀 출현하지 않을 경우 0으로 처리한 것이다.

사의 항목간 함의관계를 도출하는 데 있어 OPI의 언어자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필자는 OPI가 습득연구의 언어자료로서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언어자료로서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되기 위해 어떠한 항목을 연구하는 데 유효한지 혹은 어떠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이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점에 관해서는 제2언어 습득연구를 비롯한 수많은 연구에서 OPI가 언어자료로 이용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검토된 바가 없으며, OPI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는 데 있어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3.2.2 다양한 코퍼스 구축

일본어교육에 있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를 제외한 다른 언어에서는 충분한 데이터가 확보되어 있지 않으므로 보다 다양한 언어를 대상으로 한 코퍼스 구축이 시급하다. OPI를 문자화한 코퍼스로는 영어, 중국어, 한국어를 모어로 하는 일본어 학습자 90명의 OPI를 문자화한 KY코퍼스와, 宇佐美まゆみ編(2005)에 의해 소개된 바 있는 프랑스인 일본어 학습자 4명을 대상으로 한 코퍼스¹⁶⁾, 일본어 모어화자(54명)와 일본어 학습자(56명)의 발화 양식을 비교하기 위해 제작된 上村코퍼스(上村隆一1998) 및 한일대조연구를 위해 필자가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 30명의 한국어 OPI를 문자화한 KIM코퍼스¹⁷⁾(金玄珠2007) 등을 들 수 있다(표2).

표5 KIM 코퍼스 version1.0의 내역

초급	녹음시간 min	중급	녹음시간 min	상급	녹음시간 min
JNH 001	13	JIH 001	24	JAH 001	29
JNH 002	22	JIH 002	29	JAH 002	26
JNH 003	12	JIH 003	25	JAH 003	16
JNH 004	18	JIH 004	25	JAM 001	27
JNH 005	15	JIH 005	24	JAM 002	27
JNM 001	13	JIM 001	21	JAM 003	25
JNM 002	12	JIM 002	14	JAM 004	28
JNM 003	10	JIM 003	25	JAM 005	28
JNM 004	5	JIM 004	27	JML 001	24
JNM 005	12	JIL 001	20	JML 002	20

J: 일본어 모어화자 N: Novice I:Intermediate A: Advanced H,M,L: Sub level

15) 森山新(2005)에서는 OPI를 이용하여 조사 「で」가 장소→도구→양태→원인→시간 순으로 습득순서가 전개됨을 보고하고 있다.

16) <http://www.tufs.ac.jp/ts/personal/usamiken/corpora.htm>을 참고할 것.

17) OPI가 범언어적 구두능력 측정법인 점과 필자의 모어가 한국어인 점을 이용하여 OPI 테스트 자격(일본어) 취득자인 필자가 2005년도에 실시한 한국어 OPI를 2006년도 일본 오비린대학 언어교육센터의 연구조성을 받아 문자화한 것이다.

OPI코퍼스를 이용하여 제2언어로서의 일본어의 습득과정을 검토하는 연구가 날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나 KY코퍼스의 영어, 중국어, 한국어를 대상으로 한 것이 대부분이며(大關浩美2004, 奥野由紀子2005, 金庭久美子2003, 金玄珠2003;2004;2007, 許夏珮2000, スニ-ラット・ニャンジャローン스ック2001, 中石ゆうこ2005, 森山新2005 등 다수¹⁸⁾), 다른 언어권 학습자의 데이터베이스는 거의 구축돼 있지 않거나 양적으로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대부분의 코퍼스가 문자화 자료만을 공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문자화 자료에서 검토하기 어려운 음성언어와 비언어적 요소에 대한 연구에서도 코퍼스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방안 마련이 시급한 점을 과제로 들 수 있다.

4. 요약 및 결론

이상에서 문법성 판단과 OPI를 중심으로 장단점과 언어자료의 타당성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를 전개했다. 문법성 판단과 OPI는 제2언어 습득의 메커니즘을 검토하기 위한 언어자료로서 일본어 교육의 다양한 연구에 있어 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효율적인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크게 논의된 바 없었다. 본고에서는 이 점에 착목하여 각각의 언어 추출법이 어떠한 형태의 연구에 적합한지, 어떠한 방법으로 언어자료로서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문헌을 검토·고찰했는데 그 결과를 다음 쪽 표5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Tarone (1983)은 학습자의 모니터링을 최소한 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상적 양식’을 가장 안정된 언어자료로 들고 있으며, Vanpatten(1994)에서도 실제 회화에서는 학습자의 주의를 문법적인 모니터링보다 의미 처리에 우선적으로 반영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연구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감안하면 학습자의 일상 언어를 모든 연구에서 사용하기란 어렵다. 따라서 연구자는 여러 가지 자료 수집 방법을 검토하여 시간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는 언어 추출법을 이용하거나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언어자료 추출법을 연구·개발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본고에서는 테스트 디자인 및 연구·개발에 있어 기초자료가 되는 중요한 시사점을 다양한 문헌과 실험 사례에 대한 검토를 통해 얻을 수 있었다. 연구 성과를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일본어 교육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유용한 시사점을 제시함으로써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 제고에 일조하고 나아가 일본어를 비롯한 외국어 교육연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언어자료추출법에 대한 검토로 연구의 확대를 기하는 것을 향후 과제로 삼고자 한다.

18) <http://www.opi.jp/shiryo/bunken.html> 를 참고할 것.

표5. 문법성 판단과 언어자료로서의 OPI

		문법성 판단	언어자료로서의 OPI
연구 형태		연역적, 가설·이론 검증형	탐색적, 가설·모델 구축형
연구자료		직관에 의한 즉시적 판단 (주로 비명시적 지식, 명시적 지식)	자발적 발화 (비명시적 지식)
특장점 및 주의할 점	특징	특정 구문이 그 언어에서 용인(容認) 가능한지 어민지를 언어화자의 언어적 직감으로 판단하게 하는 언어 추출법	학습자의 자발적인 발화 형태의 언어 자료이나 일상적 양식의 대화나 자유형식의 면접과 달리 ‘준비 단계→수준 탐색→한계 탐색→종결 단계’의 형식을 갖춘
	장점	항목 분석이 용이한 점 황단적 방법으로 시간과 노력 절감 데이터 추출의 명시성이 높은 점 자발적 발화에서 조사가 어려운 항목에 대한 추출이 가능한 점	· 통제되고 표준화된 형식 · 코퍼스 활용을 통해 시간과 노력 절감 · 개별 학습자의 최고 퍼포먼스 추출 · 습득 연구에 있어서의 타당성
	주의할 점	시간의 양적 통제 중간언어 불확정성 :학습자의 판단에 있어 연습의 효과, 수의적 규칙, 추측 및 항목의 타당성 다른 요소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통제의 필요성 초급 학습자들에게 부적절함 비교적 명시성이 높은 언어자료 추출법이므로 피험자가 연구자의 의도를 추측하거나 의식할 가능성이 높음 ¹⁹⁾	· 항목별 타당성 검토의 필요성 :특히 자발적 발화에 있어 추출이 어려운 항목에 대한 방안 및 공개된 코퍼스의 음성언어, 비언어적 항목 연구에서의 활용, 활성화 방안 마련 · 한국어·중국어·영어 이외의 학습자 언어에 관한 코퍼스 구축의 필요성 · 각 코퍼스의 성공적 이용 사례 뿐만 아니라 실패 사례 혹은 문제점에 대한 검토를 통해 효율적 사용 방안 마련이 필요
일본어 교육연구에서의 주요 사례		奥野由紀子(2005):연체격조사 「の」 중심 金玄珠(2003,2004):연체격조사 「の」 중심 金玄珠·奥野由紀子(2007):연체격조사 「の」와 관형격조사 「의」 중심 黒野敦子(1995):「-ている」 중심 小柳かおる(1998): 조건문중심 坂本正(1996):조사 「は」 「が」 중심 坂本正·小山悟(1997):문법수정 능력 중심	· 大關浩美(2004):KY코퍼스, 연체수식구조의 습득 · 奥野由紀子(2005):KY코퍼스 연체격조사 「の」의 습득 · 金庭久美子(2003):KY코퍼스, 동사 습득 · 金玄珠(2003,2004):KY코퍼스, 연체격조사 「の」의 습득 · 金玄珠(2007):KY코퍼스, KIM코퍼스, 「の」와 「의」의 습득 · 許夏珮(2000): KY코퍼스, 「-ている」의 습득 · 스니-라ット·ニャンジャロンスック(2001):KY코퍼스, 「と,ば,たら」의 습득 · 中石ゆうこ(2005):KY코퍼스, 자동차와 타동사의 습득 · 森山新(2005):KY코퍼스, 조사 「で」의 습득

【参考文献】

- 宇佐美まゆみ編 (2005) 『言語情報学報告集6 自然会話分析と会話教育—統合的モデルへの模索—』, 東京外国語大学大学院地域文化研究科21世紀 COE 프로젝트.
- 奥野由紀子(2005) 『第二言語習得過程における言語転移の研究—日本語学習者による「の」の過剰使用を対象に—』, 風間書房.
- 金庭久美子(2003) 「韓国語母語話者の動詞の使用状況」 『横浜国立大学留学生センター紀要』, 横浜国立大学. 10, p.53-66.
- 金玄珠(2003) 「日本語の所有格についての韓国人学習者の文法性判断能力」 『日本文化学報』, 韓国日本文化学会. 17号, p.56-67.
- _____ (2004) 『韓国人日本語学習者の連体格助詞使用上に不確定性に関する研究—「の」の正用と脱落による誤用に判別に関するテスト-再テスト調査に基づいて』, 東京学芸大学大学院 連合学校教育学研究科 博士論文 刊行, (2006) 雄松堂出版.
- _____ (2007) 「日・韓助詞の習得プロセスについての一考—双方向からの考察と学習上の難易を中心に—」 『日語日文学』, 大韓日語日文学会. 34輯, p.105-117.
- _____ 奥野由紀子(2007) 「対照言語分析仮説の予測再考—「の」と「의」に関する日韓双方向的研究に基づいて—」 『韓国日本学報』, 韓国日本学会. 73輯, p.39-50.
- 許夏珮(2000) 「自然発話における日本語学習者による『テイル』の習得研究:OPIデータの分析結果から」 『日本語教育』, 日本語教育学会. 104, p.20-29.
- 黒野敦子(1995) 「初級日本語学習者における「-テイル」の習得」 『日本語教育』, 日本語教育学会. 87, p.153-164.
- 小柳かおる(1998) 「条件文習得におけるインストラクション効果」 『第二言語としての日本語の習得研究』, 第二言語習得研究会. 2号, p.1-26.
- 坂本正(1996) 「助詞「は」と「が」の習得について-文法性判断テストを通して-」 平成8年度日本語教育学会秋季大会予稿集, 日本語教育学会. p.166-171.
- _____ 小山悟(1997) 「日本語学習者の文法修正能力」 『第二言語としての日本語の習得研究』, 第二言語習得研究会. 1号, p.9-27.
- スニ-ラット・ニャンジャロンスック(2001) 「OPIデータにおける「条件表現」の習得研究—中国語,韓国語,英語母語話者の自然発話から—」 『日本語教育』, 日本語教育学会. 111号, p.26-35.
-
- 19) ハーバート・W セリガー의 (2001:194)에 따라 언어자료 수집 기술을 명시성이 높은 것에서 낮은 순으로 제시하면 판단테스트(Judgment test)>다지선택법(Multiple choice)>진위법(True/false)>공란보충(Cloe)>완성(Completions)>번역(Translation)>상기(Recall) 와 같다.

- 森山新(2005)「JSL(第二言語としての日本語)における格助詞 デ の習得過程に関する認知言語学的考察」『日本認知学会論文集』, 日本認知言語学会. 6, p.464-474.
- 山内博之(2001)「OPIと日本語教育研究」牧野成一編『ACTFL OPI入門』, アルク. p.170-183.
- Bialystok.E(1979) A theoretical model of second language learning. *Language Learning*, 28, p.69-84.
- _____ (1981) Explicit and implicit judgements of L2 grammaticality. *Language Learning*, 29, p.31-45.
- Cowan, R and Y. Hatasa(1994) Investigating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Native speaker and second-language learner judgments about sentences. in E. Tarone, S. Gass, and A. Cohen. eds., *Research methodology in second-language acquisition*, p.289-302.
- H. W. Seliger and E. Shohamy(1989) *Second Language Research Methods*. Oxford University Press. 土屋武久・森田彰・星美學・狩野紀子譯 (2002)『外国語教育リサーチマニュアル』
- Han, Y(2000) Grammaticality judgment tests: how reliable and valid are they? *Applied Language Learning* 11, p.77-195.
- _____ and R. Ellis(1998) Implicit knowledge, explicit knowledge and general language proficiency. *Language Teaching Research* 2(1). p.1-23.
- Johnson, J. and Newport, E.(1989) Critical period effects in second Language Learning: The influence of maturational state on the acquisition of a second language. *Cognitive Psychology*,21, p.60-99.
- Tarone(1983) On the variability of interlanguage systems : *Applied Linguistics* 4/2, p.143-63.
- Vanpatten(1994)Attention to form and content in the input:An experimental in consciousness.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11, p.385-395.
- 上村隆一編(1998)CD-ROM「インタビュー形式による日本語会話データベース」『じんもんこんDATABASE Vol.1』重点領域「人文科学とコンピュータ」総括班 上村隆一(編集責任者)

要 旨

第二言語習得のメカニズムを検討する研究では、言語資料抽出法の信頼性と妥当性が中間言語の多様な変数により影響されやすいため、テストデザインの際、十分な統制が必要となる。最近では言語資料抽出法の中でも特に、文法性判断とOPIの使用が活発に進んでいるが、言語資料としての妥当性と効果的な使用方法については未だ十分な検討がなされていない。そこで本稿では、文法性判断とOPIが言語資料としてどのような研究形態に適しており、どのような方法でデータとしての信頼性と妥当性を高めていくことができるのかについて様々な文献に当り、検討・考察した結果、テスト・デザインに関する重要な示唆を得ることができた。本研究を通して期待される効果としては、日本語教育研究のデータ収集方法に関する有意義な示唆と資料を提供することにより、日本語教育を含め外国語教育の発展に貢献できることであろう。本研究で扱われなかった言語資料抽出法についての検討は今後の課題とする。

キーワード：テスト デザイン、妥当性、言語資料、文法性判断、OPI

투 고 : 2008. 2. 29
1차 심사 : 2008. 3. 15
2차 심사 : 2008. 3. 29

住 所 : (305-509)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동 896 대덕테크노밸리 809-701
電 話 : 010-2308-7983
e-mail : kimhyonju89@yahoo.co.kr